

“충장로 상권 활성화 기폭제?”… 긴 줄에 오픈런까지

‘웨하스 충장’ 매장 인파 복직 상권 활성화 기대감도 솔솔 내년 와이즈파크 리모델링도 상권 개편…“무신사 들어오나”

“충장로 10년 만에 옵니다. 여기 매장 구경하려고 왔죠.”

21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 동구 충장로에 들어서자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는 ‘오픈런’(구매를 위해 매장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행위)행렬이 이어졌다.

상권 침체로 방문객이 눈에 띄게 줄었던 충장로 거리에 보기 드문 대기 줄이었다. 긴 줄이 향한 곳은 ‘웨하스 충장’. 한 매장에 2개 이상의 가방 브랜드 제품을 모아 판매하는 이른바 가방 편집숍이다.

웨하스 충장은 낮 12시에 문을 여는데 오픈 30분을 앞둔 시점에서 가방을 사려는 시민들로 긴 줄이 늘어져 있었다.

대기 행렬은 저녁까지 이어졌다. 같은 날 오후 8시에 다시 찾은 웨하스 충장은 여전히 매장 안에 손님이 가득했다. 평일 오후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인파로 북적이는 모습이었다.

여자친구와 함께 이곳을 찾았다는 이충민(25)씨는 “데이트 코스로 유명해서 구경하려고 왔다. 가격이 저렴하고 디자인



21일 광주 동구 충장로 가방 편집숍 ‘웨하스 충장’ 매장 앞에 가방을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도 마음에 들어 가방 2개를 구매했다”며 “충장로는 초등학교 때 와 보고 10년여만이다. 온 김에 주변도 구경하고 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웨하스 충장 김도영(37) 대표는 “매장을 열기 전에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작가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같이 연동했다”며 “우연히 오프라인 매장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마케팅 구조가 녹아든 결과다”고 말했다.

이어 “주 고객층은 20대인데, 웨하스 충장에 오기 위해 충장로에 오랜만에 왔다

는 말을 많이 한다”며 “충장로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게 느껴진다. 거리가 변하고 있는 만큼 충장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장로가 오랜 침체를 벗어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구도심 공동화로 방문객이 줄면서 상가 공실이 급증하던 충장로 상권 일대에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기간 공실률이 절반에 달했던 압축기를 지나 복합쇼핑 시설 개점 준비가 이뤄지면서 충장로 거리가 되살아나는 모양새다.

웨하스 충장뿐만 아니라 나이트클럽 개장, 와이즈파크 건물 리모델링, 무신사 입점 등의 소식이 들리면서 ‘호남 최대 상권’이라 불렀던 충장로의 명성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와이즈파크 충장점은 지난해 말 영업을 종료했다. ㈜시너지타워가 건물을 대상으로 내년 5월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다. 시너지타워는 이곳에 외식업과 놀이공간을 입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류매장을 주력으로 보고 있는데, 패션 쇼핑 플랫폼 1위 기업인 무신사가 입점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너지타워는 광주 동구와 MOU를 맺은 뒤 무신사와 입점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신사는 한국 온라인 패션

커머스 기업이다. 시너지타워 관계자는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 있다. 논의는 했으나 구체적인 확정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전했다.

시너지타워는 광주 첨단1지구 일대에 자체 브랜드인 상가를 개발해 ‘시리단길’이라 불리는 상권을 조성하는 등 MZ 세대들의 핫플 장소로 만든 노하우를 접목하기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충장로 황금동에는 최근 나이트클럽이 새로 문을 열었다. 나이트클럽은 주말에 유명 연예인을 초청하는 등 홍보 행사를 적극적으로 펼쳐 예상 매출액을 상당수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동구는 2022년부터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 일환으로 상권별 특화거리 조성, 충장라운페스타, 상인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해 왔다.

정순기 충장로1·2·3가 상인회장은 “최근 충장로가 그동안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신규 점포들이 입점을 위해 공사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며 “상권 부활을 위해 동구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충장로·금남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8%로 광주 평균(17.6%)을 1.5배 이상 웃돌았다.

글·사진=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기상청·해경 협업하니 기상악화 사고 7배 줄어

해양기상 전문 공동TF 최종보고

광주지방기상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협업으로 기상악화 사고가 7배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기상청(이하 기상청)은 21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서해해경)과 해양기상 전문화 공동TF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해상안전 사전 예방 협업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해 10월 공동TF를 출범하고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왔다.

기상청은 선제적 위험기상정보를 전파하기 위해 특보시나리오와 9시간 합성파

랑장을 활용한 안전해역 정보를 포함한 ‘해양기상정보 더 줌’을 제공했다.

특히 해양안전관리의 중요한 판단요소인 풍랑경보 가능성과 특보의 지속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보시나리오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수시로 소통해 실질적으로 안전체계가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지원했다.

서해해경은 이를 토대로 자체 경계단계를 도입하고 경비함정,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뿐 아니라 여선안전조업국과의 협업을 통해 어민들에게 안전방송 및 안전해역 이동조치, 조기피항 등의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그 밖에도 위험기상 대응 방재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매뉴얼화하기 위해서 ‘해양사고 시 상세기상정보 제공 방안’을 개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풍랑특보 발효일수가 전년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고 건수가 감소했다.

특히 기상 악화가 원인이 된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건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2건으로 7배 이상 줄었다.

서장원 광주지방기상청장은 “앞으로도 해양종사자들이 안전한 바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광주시교육청 학생관현악단 ‘가정의 달 영화음악회’

24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서 록키 모음집 등 명곡 연주

광주시교육청 학생관현악단이 오는 24일 오후 4시에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2024년도 가정의 달 영화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광주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영화음악을 선보이며 무료로 진행된다.

주말의 명화 메인테마를 시작으로 △록키 모음곡 △미녀와 야수 △007 주제곡 △스타워즈 등 우리 귀에 익숙한 주옥같은 영화 음악을 연주할 예정이다. 또한 △

오페라의 유령 △라이온킹 △겨울왕국 모음곡 △사운드 오브 뮤직 등 여러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명곡들을 연주한다.

이날 강성원 광주원도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이 지휘자로 나서 75명의 학생들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일 예정이다. 관람을 원하는 시민들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으로 오면 된다.

정은남 광주학생교육문화관장은 “음악은 무한한 감동과 희열을 선사하며 사람들을 잇는 매개체다. 이번 가정의 달 영화음악회가 사랑하는 가족과 영화음악의 감동을 느끼며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혜인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국밥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국밥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